

■ 비대위원장 인선 10일째 선출 민주당 리모델링 어떻게

관리형 비대위 무게… 3월 전대론 탄력

계파·세력간 입장차 선출작업 난항
원혜영·이종걸·박영선·이낙연 거론

18대 대선 패배 이후 민주통합당 진로의 로드맵을 마련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는 애초 지난 31일 비대위원장 선출을 목표로 했지만 계파·세력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비대위원장 선출 시점이 이달 10일께로 연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9일째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확정할 것이다. 가급적 추대로 하는 게 좋겠지만 안 되면 여러 방법을 통해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무위 소집 전인 3일 상임고문단, 4일 시도당위원장, 7

일 전 원내대표, 8일 초선 의원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비대위원장은 당의 혁신 사령탑인 동시에 대선 평가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대선 평가 결과에 따라 당 쇄신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원혜영·이종걸·박영선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원 의원은 일부 중진의 추대론을 토대로 친노와 주류 측의 지원을 받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비주류 측신파의 대안 카드로 거명되고 박 의원은 일부 초·재선 그룹에서 추대론 움직임이 있다. 이밖에 5선의 이석현 의원과 4

선의 박병석·이낙연 의원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정세균 김한길 의원도 거론됐지만 본인들이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비대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는 당내 세력 간 입장차 때문이지만 이를 조율하고 합의를 끌어낼 만한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비주류 측은 주류 측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역학 구도상 비대위원장 인선을 주도할 만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다.

친노의 경우 대선 패배의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주평화국민연대나 486 운동권 중심인 진보행동, 손학

규 상임고문 계열도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며 당내 분위기를 살피는 인상이다.

비대위 성격과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도 비대위원장 선출작업이 난항을 겪는 이유다. 애초 비대위원장이 처절한 대선 평가와 더불어 당 혁신을 주도한다는 혁신형 비대위 구상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차기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공정한 경선을 담보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좀더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혁신형 비대위는 충분한 활동기간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5월 전당대회론과 연결돼 있었지만 관리형 지도부로 방향을 정한다면 3월 조기전대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한반도 대결상태 해소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北 김정은 육성 신년사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남북간 대결 상태 해소와 이를 위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를 통해 중계된 육성 신년사에서 “나라의 분열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구성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공동사실에서도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은 대외문제와 관련해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핵문제 등 북미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인민생활 향상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라고 밝혔다.

올해 관심을 끄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 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김 제1위원장이 작년 ‘6·28방침’을 밝히고 일부 지역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시범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변화가 북한 전역에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오전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방송을 통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삼서 市선관위 상임위원
고재익 道선관위 상임위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박삼서(57·1급) 전 도선관위 상임위원과 고재익(57·1급) 전 시선관위 상임위원을 각각 시선관위 상임위원과 도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시선관위 사무처장에 정영택(55·2급) 전 중앙선관위 정당과장이 임명됐다.

박 시선관위 상임위원은 전북도선관위 관리과장과 지도과장, 광주시



박삼서 상임위원 고재익 상임위원

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고도선관위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공보관, 전남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정 시선관위 사무처장은 도선관위 관리과장·지도과장, 중앙선관위 감사담당관 등을 거쳤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새해 새 설계

노 회 용 광주 동구청장

전시·공연 유치 문화산업 활성화



재개발·주거환경 주력

경로당에 주치의 배치

다문화가정 복지 온힘

힘쓰겠다고 전했다.

노 구청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2년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화전당에 답을 콘텐츠와 관련산업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동구는 본격적인 도약을 이뤄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아시아문화

전당이 개관하면 광주 동구는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이자 호남의 중심, 광주의 심장이다”며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에 전시, 공연, 창작관련 문화산업 등을 유치해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확대시키고 문화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도심 재생사업에 동구 미래의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주민 소득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3개 경로당에 대한 주치의 배속 등 주민체감 복지서비스와 상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문을 여는 동구장에 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보건과 복지, 생활 안전지원 등 통합 복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울이고 여성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데 온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美서 관광버스 전복 9명 사망

美 ‘재정절벽’ 협상 타결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각) 한인 위주로 약 40명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뒤 수 십m 아래로 떨어지면서 탑승자 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캐나다 밴쿠버의 한인 여행업체 미주여행사(Mi Joo Tour& Travel) 소속 전세버스가 오리건주 동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했다. AP통신과 CBC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리건주 동부 팬들턴 인근 84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는 눈과 얼음이 덮인 노면에서 중심을 잃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30m가량 굴러 떨어졌다. 버스는 3차례나 구르며 암석으로 돼 있는 언덕의 바닥에 처박히는 바람에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적자: 문석민(56) 정은홍(68) 김중화(64)
-미국 시민권자: 반준호(64) 리처드 손, 데일 오스본
-국적 미확인: 김애자(62), 이영호

/연합뉴스

철저·한·독·일 인 의 장 인 정 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산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양물건보유

20년 원조 팍 광주, 화순, 담양, 나주, 정선, 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양)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通... 하십시오!

더 신뢰있고 더 좋은 정보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목욕탕 매매

1만5천여 세대 독점
성업중인 최신시설
목욕탕, 높은 수익률

대 지	2,480㎡(750평)
건 물	4,460㎡(1350평)
용 자	20억~25원 까지
매매가	40억원 (감정가 58억원)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금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당후 결정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당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가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건내)